

유럽

- **영, 헤즈볼라와 연계하여 테러 모의한 용의자 체포**
 - 4.3 언론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(美·英·EU 테러단체 지정)가 유럽 전역에서 테러 자금을 모으며 영향력을 확산하는 가운데, 영국 내부에서 테러를 모의한 헤즈볼라 조직원 2명을 체포하였다고 보도
- **NATO, 진화하는 위협 속에서 테러 대응 노력 강화**
 - 4.7 외신은 NATO가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대테러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며, 특히 드론과 화생방 및 핵 위협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한 주도권을 강조했다 보도
 - ※ 최근 새로 부임한 NATO 테러 방지 특별 조정관은 각국의 테러 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합하고 외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목표로 한다 부언
- **프랑스, 파리에서 테러 모의 용의자 체포**
 - 4.7 언론은 파리에서 테러 공격을 모의한 용의자 2명을 체포하였으며, 용의자 中 1명의 집에서 ISIS에 대한 충성서약과 수제 폭발 조끼로 보이는 물건들도 발견하였다고 보도

미주

- **美, 테러 방지 회담을 위해 파키스탄 방문**
 - 4.7 외신은 美 국무부 고위급 대표단이 테러 방지를 위한 양자 협력 강화와 파트너십을 모색하고자 파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며, 이전 협력간 카불 공항 공격 배후자를 체포하는 등의 성과를 냈었다고 보도
 - ※ 카불 공항 공격 당시 미군 13명과 170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인이 사망하였다고 부언

중 동

- 이란,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 비판 및 암살 선동
 - 4.6 언론은 이란 최고지도자(하메네이)가 보수 매체(카이한)를 통해 트럼프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였으며, 특히 '20년 미군이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사살한 것에 대한 복수의 암살도 선동하였다고 보도
 - ※ 美전문가들은 이란의 이런 위협이 외교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며, 관련자와 매체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양국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이라고 부언

아 테

- 日, 권총을 소지한 채로 입국한 미국인 관광객 체포
 - 4.3 언론은 미국인 관광객이 권총을 소지한 채 일본에 입국했으나 공항 보안 검사에서 미감지하고 해당 관광객의 뒤늦은 자진신고에 '총포·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'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보도
 - ※ 日 대학교수는 간사이 공항의 경우 이미 출국 국가에서 보안 검사를 마친 승객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아 권총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
- 韓, 폭탄테러 허위 신고 後 강도행각 벌인 20대 징역 3년 선고
 - 4.6 언론은 20대 남성이 '24년 8월경 “역에 폭탄을 설치했다”고 허위 신고를 한 뒤 편의점에서 흥기를 이용해 강도행각을 벌이다 구속되었으며 재판과정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고 보도
 - ※ 법원은 피고인이 '23년 11월경 폭탄테러 허위 신고로 인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동일한 범행 및 특수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
- 인도, 여객기 폭탄 위협 내용 적힌 쪽지 발견돼 비상착륙
 - 4.8 언론은 인도 최대 항공사인 인디고항공 여객기가 승객 225명을 태우고 국내 노선을 운행하던 중 기내 화장실에서 폭탄 위협 내용이 적힌 쪽지가 발견돼 비상착륙 하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보도
 - ※ 인도 연방정부 민간항공부는 올해 들어서만 최소 15편의 인도 여객기가 폭탄 위협을 받았으며, '22년 이후 사례는 총 833건이라고 발표

호주, 시드니 교회 '종교적 동기 흉기테러'

- '24.4.15 호주 시드니 남서부의 한 교회에서 예배 도중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설교하는 주교를 흉기로 공격, 주교·신부와 신도들이 부상



- 당시 미사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어 많은 사람이 테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였으며, 이로 인해 영상이 SNS로 빠르게 전파·공유
 - ※ 범인에게 보복하겠다고 약 600명의 사람이 교회 앞으로 몰려와 경찰과 대치·충돌하여 경찰 51명이 다치고 경찰차 등이 파손하는 사건도 발생

- 호주 경찰은 가해자인 16세 청소년을 체포했으며 “범인이 흉기 난동 시 종교적 동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 사건을 종교적 동기의 '극단주의 테러 사건'으로 규정했다”고 발표
 - 또한, 용의자를 1995년 형법 제5.3편(테러리즘) 제101조 1항(최대 종신�형 선고 가능)에 따라 테러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

⇒ 최근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테러에 선동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대상 극단주의 선전·선동 관련 모니터링·차단 강화 필요

테러 상식

< 호주 테러방지법 상 테러행위 >

- (개요) 호주 테러방지법은 1995년 형법 제1부 제5.3편(테러리즘) 제100-103조에 규정
- (정의) 테러 행위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위협(제100조 1항)
 - △ 정치적, 종교적 또는 이념적 목적을 추진하려는 의도 △ 대중을 위협하거나, 협박을 통해 정부를 강압하거나,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수행 △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발생 ①사망, 심각한 피해 또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, ②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, ③대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심각한 위협, ④통신이나 전기 망과 같은 중요 인프라에 대한 심각한 방해, 교란 또는 파괴
 - 옹호, 항의, 반대 또는 산업 행동은 해당 수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대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의도가 없는 경우 테러 행위 아님